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 의회소식

DAEGU · METROPOLITAN COUNCIL JOURNAL

AUGUST 2007





CONTENTS

대구 의회소식 제 52호

제5대 의회 1년을 마무리하며	3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4-6
주요안건처리 요약	7-9
5분 발언	10-11
시정질문·답변	11-17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18-19
의원 개인 사무실 안내	19
현장탐방(대구기계부품연구원)	20-21
생활정보	22-23



COVER STORY

비슬산 자연휴양림

편집위원

류규하 의원
김덕란 의원
임경호 교수
이시훈 교수
이종규 기자
최 곤 기자



제5대 의회 1년을 마무리하며...

준 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출발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5대 의원 모두는 저희를 선출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정활동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후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의회에 거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는 더욱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첫째, 정책자문 기능과 입법·정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고, 입법정책지원담당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여 석·박사학위 소지자인 전문계약직 채용을 늘리는 등 현재 11명의 전문 인력이 활발한 연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원 스스로도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개원과 더불어 의원연찬회를 열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들이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하면서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감사기법을 배우는 등 수시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수초회(수요초선공부모임)'에서는 수요일 아침,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5대 의회에서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회기일수를 120일에서 140일로 늘리고, 전반기 1년 동안 총 9회 147일간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어 지금까지 1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비회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민원 사항을 챙기는 등 시민의 처지에서 7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의회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의원 개인 사무실을 설치하고, 청사를 재배치 하였습니다.

비록 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로 말이 있었습니다만, 개인 사무실로 의원을 찾아오는 민원상담이 늘었고, 의원들의 의정 연구 활동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역동적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없도록 봉무산업단지과 테크노폴리스 조성, DGIST 건립과 더불어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앞장서 무엇보다 대구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청렴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지역 경제도 살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장경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류규하)는 4월 3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60회 임시회를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하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6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6월 1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6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회기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1일간 열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포함)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포함)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예산 및 결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9명)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 회기 중인 6월 29일과 7월 11일에는 의회사무처소관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안」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류규하 운영위원장은 강원도의회에서 개최한 「제9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충북도의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현안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는 제160회 임시회 기간에 혁신분권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1주년을 다문화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유치 사업비 분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 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 현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처리하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명칭 변경하도록 요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제의 지역 지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교 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노)는 제160회 임시회 기간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의료원의 이사 자격 및 인원수 등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률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인 5월 16일과 18일에는 관광정보센터와 장묘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을 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실시와 종합장사시설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 적정성과 무분별한 사업집행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차단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 기타 일반 안건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제교통위원회

경 제교통위원회(위원장 도이환)는 160회 임시회 기간에 소관 국·본부의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안경산업 지원센터, 지하철 2호선 문양차량기지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1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



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는 웨어러블컴퓨터 기반의 U-헬스상용서비스사업 등 10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 13억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그 외 일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주식회사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엑스코로 명칭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현재 사회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DGIST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와 의논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환경위원회

건 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제160회, 161회 회기 중 조례안 7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및 추경안 2건을 처리하였다. 우선 제160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안)」은 일반회계 23억 8,300만원, 특별회계 7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 의견청



취의 건」에 대해서는 동구 괴전동 송정초교 남측의 중변경(1종→2종) 및 가톨릭종합병원, 경상고교 북측에 대한 면적증가 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

▶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희)는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교육사회위원



장실에서 특별위원회위원(7명)과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여기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가 이번 용역 수행을 지연한 점, 과업지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점, 용역기간이 2007년 7월 11일에서 2008년 1월 7일까지로 되어 있어 2007년 11월 30일까지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시에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위 원 : 이동희(위원장), 권기일(간사), 김의식, 김덕란, 정순천, 이경호, 김대현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포함)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포함)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대구광역시	3,988,167	3,498,180
대구광역시 교육청	1,652,685	1,541,59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대구광역시	3,868,500	4,094,770	226,270
대구광역시 교육청	1,553,796	1,599,793	45,997

▶ 위 원 : 이윤원(위원장), 이경호(간사), 이동희, 차영조, 유영은, 서중현, 박돈규, 김영식, 양명모

160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송세달 의원

▶ 송세달 의원 외 5인 발의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집회하도록 하는 것을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 날 집회하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6일로 조정함.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김덕란 의원

▶ 김덕란 의원 외 12인 발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차원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연장 지침에 의거, 지방행정 혁신분권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관련 업무 추진요원 정원 15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거주 외국인이 주민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 각종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을 추가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시·군별 안분 세액에 수정신고 기한을 보통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로 완화함.

●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유치 사업비 분담 동의

시범노선 건설비의 20% 이상을 분담하고 분담금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건설교통부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

●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대구의료원의 이사 자격 및 인원수 등의 관련규정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사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상근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각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며,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같음함.

160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함.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수도 요금관련 규정을 수용가 권익보호 위주로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지역(21개 지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61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신기술산업본부와 기업지원본부의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신설하고, 지하철 1·2호선과 달리 지상노선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등 향후 교통시설의 기능에 맞게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명칭 변경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신설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기능 보강 인력 증원 등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업무에 맞게 재조정된 후 기능이 강화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20명을 증원함.

●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동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 동구 송정동 외 13개 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 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 원안 가결함.

●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구성(5~7명)에 있어 의회 추천위원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예능 단원에게 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대구광역시 차원의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6년 9월에 착공하여 2007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대구 학정, 대구 호산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각급 시립학교 426교 중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419교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161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수동 소재 공립치매병원과 2007년 6월 4일 개원한 병원 및 향후 추가로 건립할 병원을 서로 구분하고자 병원 명칭을 변경하고, 병원 운영의 투명성·공익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대구광역시주식회사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설립조례 일부개정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명칭이 영문약칭인 엑스코와 혼합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함. 전시컨벤션센터의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법인 명칭을 종전의 주식회사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엑스코」로 변경함.

●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구분에 관한 조례 폐지

개정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1988년 4월 1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폐지함.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 방안을 신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평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함. 또,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을 조정함.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 박돈규 의원 발의



박돈규 의원

각종 건축 공사현장에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공사책임자 실명 등이 기재된 건축허가표지판의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사현장 주변 불편 민원을 해소함.

●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구광역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1999년 제7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후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목표연도 2015년의 인구수용을 위한 도시용지 공급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시개발로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2003년 일반주거지역 중세분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함.

●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주거 복합비율 설정 기준과 기준용적률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맞추어 민영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대상구역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경과조치 내용을 변경함.

Speaking 5분 발언



정해용 의원
동구 3, 160회 임시회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의 노선변경 경위 공개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노선이 당초 ‘엑스코-봉무산업단지-대구공항-동대구역-범어네거리-공전맨션 앞, 12.7km를 최적의 구간으로 선정하였는데, 갑자기 대구공항과 봉무산업단지 구간이 특별한 타당성도 없이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당초 시는 자기부상열차를 동대구역과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무산업단지와 팔공산 관광진흥, 검단공단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노선을 결정하면서 유치만이 목적인지 장기적인 대구의 비전을 가지고 유치에 뛰어드는지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며 노선변경 경위와 타당한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차후 발생하게 될 갈등과 민원을 없애야 할 것이다.



김중환 의원
북구 4, 160회 임시회

전국 유일의 방짜유기박물관 개관·운영에 만전을 기하자

방짜유기박물관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이봉주 선생께서 먼 훗날 문화재적인 가치가 담긴 방짜유기를 전승·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악기, 식기, 제기, 생활용품 등 275종 1,486점을 기증하여 전시하고 있으나, 기증한 방짜유기 가운데 상당수가 지하창고의 수장고에 잠자고 있고, 방짜유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 방짜나 주물로 만든 유기가 있어 기증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관을 목전에 두고 박물관 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시는 전국 유일의 방짜유기전문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방짜유기를 보기 위해 대구를 찾는 관람객에게 올바른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서중현 의원
서구 2, 161회 제1차 정례회

대구경제 살리려면 대구공항 활주로 연장·공단 분양가 하향조정 필요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외국의 거대 자본이 유입되어 세계적인 첨단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활주로 길이가 2.7km밖에 되지 않는 대구공항을 2km 더 연장하여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더불어 대구소재 대부분 공단의 3.3㎡당 분양가격이 200만원~500만원으로 기업 채산성을 맞출 수 없으므로 3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대구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국내 우수한 대기업과 외국의 첨단산업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기존 대구공단의 대체 공단 역할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신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위해 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신천정비사업과 관련, 금호강·신천종합개발사업,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신천솔라파크건설 등 시장지시사항을 이행하고자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마련한 신천 개발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은 신천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부서간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원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가칭 “신천살리기 시민모금운동”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전제될 때 신천이 진정한 시민 공간으로, 대구의 젓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관 주도 사업에서 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신천살리기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류규하 의원
중구 1, 161회 제1차 정례회

Q & A 시정질문 · 답변

서대구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미래형 뉴타운 건설 의향은?

Q 서대구공단이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된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2016 대구 도시기본계획대로 재추진할 용의와 준산업단지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주거·상업지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미래형 뉴타운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A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에 확정·공고하였으며, 대구의 인구가 현재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 때문에 부득이 서대구공단을 공업지역으로 존치했으며, 서대구공단은 854개 업체 1만 1,000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구의 중요한 공업단지인 점을 고려할 때 주거용지로 재검토하기는 어려움.

● 더불어 노후화된 산업단지, 특히 도심 산업단지 재개발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우선 서대구공단 내 산업인프라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R&D 등 혁신기관을 집중시켜 젊은 고급인력 수요 중심의 도시형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문화, 환경, 생산 등의 기능이 조화된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 공동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임.



김의식 의원
서구 1, 160회 임시회



이동희 의원
수성구 4, 160회 입사회

향토예술자료 발굴 · 보존과 활용 방안은?

Q 향토예술자료 발굴 및 보존과 활용을 위해 대구예술인 사전과 작품집 목록 등을 제작하고, 대구 시립예술 아카이브(기록관)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데 대한 의견은? 아울러 국외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성과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A 국내 문화예술관련 아카이브 기관은 현재 2개가 있으며, 지금 문화예술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자료 발굴과 정리사업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향토출신 예술인과 작품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브 구축 기초 작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2002년부터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을 주요 시책으로 삼고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한 결과 학생활동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즐거운 학교분위기를 만들어 귀국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교원을 채용할 때에 남자교사가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용 의원
동구 3, 160회 입사회

어린이회관 운영 활성화와 팔공산 관광자원화 계획은?

Q 21C 첨단시대에 뒤떨어진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와 보수를 시행하고, 어린이회관의 차별화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와 새로운 투자와 관리 부족으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팔공산을 관광자원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A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개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IT 시설 전시물 확충과 각종 전시물의 효용성 여부, 전시물 재배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팔공산을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노력의 하나로 불교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지구와 금호강의 자연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금호지구로 나누어서 공간별 특성화, 관광자원 간의 효율적인 연계개발을 담은 제4차 대구권관광개발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팔공산 관광개발을 위해 동구와 세부계획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은 의원
비례대표, 160회 입사회

한미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구시의 대처 방안은?

Q 한·미 FTA 협상 중 대구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섬유, 농축산,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지역 업체의 개성공단 진출 지원 대책과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A 한·미 FTA타결로 섬유분야에 평균 10~13%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섬유산업의 대미수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좋은 기회로 앞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외국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분야는 간담회 등을 통한 건의사항 청취와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자동차 부분은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가 뒤지지 않도록 R&D부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지역업체의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문제들은 중앙정부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많은 섬유업체가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작년에 위탁자 선정 공모를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신청기관이 없었으며, 앞으로 수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유통단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실태와 시내버스준공영제 활성화 방안은?

Q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조례 관리의 문제, 관련법 집행에 따른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대책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나타난 서비스 평가제 개선과 교통카드 자료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는?

A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조례상에 명시된 세입세출 목적과는 다소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내년부터는 비목별로 검토해 보고 최대한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하겠으며, 관련 법령에 들어맞지 않는 조례는 자세히 분석하고 계획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인구와 교통카드 사용은 증가하였지만 서비스 부분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시내버스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평가 비율이 40%까지 도달하도록 연차적으로 올려나가고 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내버스모니터단 260명과 지하철모니터단 30명 정도로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통합모니터단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교통카드시스템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카드넷과 재원문제 등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천 의원
수성구 1, 160회 임시회

대형할인점 입점 허가와 건축허가 승인과정은?

Q 황금네거리와 범어네거리에 건립할 주상복합건물 2곳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해 교통 혼잡과 주변 상권의 초토화가 예상되는데, 시는 입점 규제를 위해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교육시설로 임대 사용 중인 시유지가 포함된 북구 태전동 676-30번지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이유는?

A 황금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대형마트 입점은 대형마트 신규진입업체 추진계획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얻은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규모를 최소화하여 입점을 허가하게 되었으며, 2006년 12월 6일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행정적으로 가능한 규제 기준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형마트 신규 진입업체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 기존 대형마트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신규진입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한편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북구 태전동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지는 사업승인 신청 당시 매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상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며, 팔거천 하천구역내 도시계획도로공사로 인한 하천 치수방재 기능약화와 공간 활용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철 3호선 노선이 확정·고시되면,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종합적인 팔거천 하천정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북구 4, 160회 임시회

도심과 기성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주택정책 방향은?

Q 도시주택정책이 도심과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 슬럼화 초래 등 여러 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는데 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용의는? 앞으로 도시주택정책의 발전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 등 혁신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KT&G 침산동 부지와 달서구 대한방직 부지에 대하여 특혜성 시비가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임의로 1층, 2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만 규제하고 층수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법령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점에서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해서 3, 4개 정도 층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계, 관련 협회,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하고 시민 여론도 청취해서 4개 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 도시주택 관련부서 조직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달서구 대한방직과 KT&G 침산동 부지에 대해 특혜성 시비가 있으나, 이미 공장과 창고가 떠난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제공과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양명모 의원
북구 2, 160회 임시회



정규용 의원
남구 1, 160회 임시회

낙후된 앞산공원을 활성화할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Q 낙후된 앞산공원 개발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앞산공원 상징물 설치와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장소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A 앞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2005년 3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 법에서 도시공원 종류에 도시 자연공원은 제외되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도시 자연공원인 앞산공원을 포함한 6개소의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앞산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해맞이 정자 등 상징물 설치의 공원변경 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부족한 운동시설과 운동 기구는 의견수렴 후 추가 설치하고,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기념관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산골 도시계획 공원도로 및 인도(앞산향공무선표지소입구~앞산공원관리사무소)개설을 추진하겠음.



박부희 의원
달서구 3, 160회 임시회

직업훈련시설 확보 등 정신질환자 자립기반 조성 대책은?

Q 정신질환자들의 주거시설과 직업훈련시설 확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통해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시의 입장은?

A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시 차원에서 정신관련 시설 서비스 향상에 보건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정신질환자의 주거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도록 국비와 시비 예산 확보 노력과 민간의 관련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음.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은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와 관련, 시는 8개 구·군에 정신보건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앞으로 국비 지원 가능 여부, 지역수요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음. 자살률 억제를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자살예방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상담인력 보강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자살 위기에 대한 기초상담기능 확대를 통해 자살예방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음.



류규하 의원
중구 1, 161회 제1차 정례회

도심활성화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Q 도심재개발사업의 부진과 도심활성화 시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는? 또 도심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과 시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의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A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는 점이 많음. 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지난 1월에 구성, 현재 ‘대구 그랜드 디자인’을 달성하고자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도시재생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음. 신설하는 도시재생팀과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음. 또 도심활성화는 물론 시 전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금년 6월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도심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은 지역균형개발 지원 조례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음.

- 시청사 건립은 각종 프로젝트 준비와 실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이나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도심활성화 전략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지역 전략산업 위주 스타기업 지정은 편파적이지 않은지?

Q 스타기업을 지정하면서 시가 지향하는 전시컨벤션산업, 문화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은 선발 기준에서 배제하고 지역전략산업위주로 지정하여 편파적일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천억 클럽과 스타기업 정책 전담부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는?

A 스타기업 선정 시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지역전략산업이 아닌 분야도 일부 선정되었음. 심사 기준은 매출액, 수출액 등에 의한 단순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시장성에 중점을 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CEO의 경영마인드 및 고용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앞으로 4차년에 걸쳐 100개의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시책을 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음.

● 천억 클럽정책과 스타기업정책 전담부서가 다른 이유는 당초에는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스타기업관련 업무가 방대하고 또 천억 클럽 정책과의 업무추진 성격이 상이하하여 분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스타기업 시책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테크노폴리스 DGIST 부지와 주변 부지 일괄 보상 의향은?

Q 테크노폴리스의 DGIST 부지와 주변부지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2단계로 나누어 보상할 계획으로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일괄보상 의향과 테크노폴리스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달성3차 산업단지 공단지역에서 제외되는 용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A DGIST 조기착공은 중앙정부 및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으로 더 지체될 시 올해 확보된 DGIST 건축 예산의 불용처리와 내년 이후 예산확보 등에 차질이 예상되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보상계획 중 DGIST구역에 대하여 우선 보상하도록 토지공사에 요구한 사항이며, 선 보상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어 토지공사에 일괄보상하도록 추진하였으나, 토지공사의 자금 수급상 보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행정지도와 감시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주변지가 억제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 달성3차 산업단지 공단지역에서 제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난 개발을 방지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사업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 달성3차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나 규모, 방법 등을 최종 결정짓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규모의 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안심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Q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한 안심공업지역을 1997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해놓고도 1999년, 2007년 두 차례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와 도시계획 추진에 대한 의견은? 공산담 주변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A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수립 시 안심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관내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시가지에 근접한 도시형 공장용지의 필요성과 장래 인구 감소추세 등을 고려할 때 대체 산업단지조성 시까지 일반 공업지역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난 2월에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안심부도심의 주요기능을 유통과 주거기능, 레포츠 휴양기능으로 배분하였으며, 현재 동구청에서 시행 중인 안심지역종합개발계획과 혁신도시건설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부도심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겠음.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관련, 공산담은 현재 상수원수로서 적합한 상태이며, 공산정수장은 원수대 및 물이용 부담금이 없어 타 수원보다 경제성이 있는 편임. 상수원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금년에 착수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조정 또는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유영은 의원
비례대표, 161회 제1차 정례회



김영식 의원
달성군 2, 161회 제1차 정례회



도재준 의원
동구 4, 161회 제1차 정례회



차영조 의원

남구 2, 161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시스템화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Q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높이 완화 심의기준 마련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은?

A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전자정부의 보급 등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간접으로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의 객관화와 투명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높이 완화 심의 기준 등과 관련, 현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 중이며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임.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 간의 불공평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향후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나 심의기준에 규정하기보다는 국토계획법령에 제도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중앙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음.



이재술 의원

북구 3, 161회 제1차 정례회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철도연변 정비사업 추진은?

Q 경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경제통합 추진에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을 경제통합사무국에 배치할 의향은?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는? 경부고속철도 연변 정비사업 추진과 가칭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을 경북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A 경제통합 활성화는 경제통합사무국 기능강화와 우수인력 과전이 중요함으로 경북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조례가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기구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며, 행정통합문제는 경제통합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시·도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철도 연변 정비사업 관련, 시 입장은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수탁을 받겠다는 의지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함.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며, 지금은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으므로 해결한 후 경북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음.



이윤원 의원

동구 1, 161회 제1차 정례회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에 배정 가능한가?

Q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원칙에 따라 자치구에 적절하게 배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보전금 중 자치구 몫을 조정교부금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의향은?

A 구·군이 정수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시가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가 있었지만,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재정확충방안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열악한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는 문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 배분기준 개선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임.

● 그동안 재원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 2006년 2월 28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자치구간 재원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 계획 있나?

Q 현풍방향 국도 5호선 일부 구간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과 공기 내 완공 여부 는? 또 지방하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18개 하천에 대한 재정비 추진 여 부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설계빈도 강화적용에 대한 견해는?

A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국비확 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교통부에 내년 예산 400억 원을 요청 한 상태로 계획한 공기 내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하천 대부분은 정비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재정비 추진 중이며, 재정비가 되지 않은 18개 하천은 빠른 기간 내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천개수를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 사업에서 현풍천 등 11개 하천은 완료단 계에 있으며, 금포천 등 7개 하천은 사업이 추진 중임. 지방 2급 하천설계빈도 강화 적용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개수를 향상과 하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성배 의원
달성군 1, 161회 제1차 정례회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청의 폐쇄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Q 12개 이전기관과 관련된 산·학·연 유치 추진실적과 실적이 없다면 유치가 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지원대책 마련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폐쇄적인 인사제도에 대해 2005~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A 현재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를 위한 초기계획 단계로서 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구체 적인 산·학·연 유치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이에 따 른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실현 가능한 유치조건을 만들어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관 및 산·학·연을 체계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는 용역에 따른 소요면적 판 단 후 필요하다면 농업시설 용지와 1지구에 배치된 유보지를 클러스터 용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구시 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장 임명과 관련하여 동부와 달성교육청은 초등출신 교육장을, 서부와 남부 교육청은 중등출신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교육장을 상호 교체하여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있음. 우선 2007년 9월 1일 정년퇴임일이 같은 서부교육청과 달성교육청 교육장을 교체 임용하 도록 하고, 앞으로 인사 시기와 요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교체임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세달 의원
중구 2, 161회 제1차 정례회

체계적인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의향은?

Q 결혼이민자가 3,809명, 자녀수가 2,045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관련 부서도 일원화되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시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견해는?

A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금년 6월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 례』제정, 민간지원단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과 상담 및 쉼터 운영, 생활, 법률, 고충, 취업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결혼이민자 정책수립을 위하여 매년 5월에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조사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현재 2개소(남구, 달서구)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타 구·군에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제도권내에서 는 지원이 곤란하므로 자진신고, 자진 출국 등을 유도하고 쉼터나 지원센터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 며, 이주노동자 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달서구, 2009년 서구지역에 설치할 계획임.

●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담당 단위 정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희 의원
수성구 4, 161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의회의원 화합 체육대회 개최



▲수초회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 토론회 개최』

대구광역시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제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낙후되고 침체한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나갈 것이다.

지난 4월 시·도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의회의원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양의회 간 상호협력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초선의원들의 의정 연구활동 모임인 수초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1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9일 오전에는 제5대 의회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 의정활동 1년 성과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남은 기간 대구광역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 오후에는 복식부기와 2008년도에 도입 될 사업예산제도 등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다.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2006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포함)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포함)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소관 부서와 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 업무를 직접 챙기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복식부기 및 사업예산제도 특강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설명회



▲중학교 학생회장단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 학습」 실시

의원 개인 사무실 안내



선거구명	성명	호실	연락처(053)	비고
중구	1 류규하	운영위원장실	803-5010	2층
	2 송세달	304	803-5031	3층
동구	1 이윤원	319	803-5065	3층
	2 권기일	303	803-5071	3층
	3 정해용	301	803-5036	3층
	4 도재준	건설환경위원장실	803-5015	2층
서구	1 김익식	313	803-5033	3층
	2 서중현	306	803-5062	3층
남구	1 정규용	318	803-5064	3층
	2 차영조	317	803-5092	3층
북구	1 장경훈	의장실	803-5007	2층
	2 양명모	310	803-5094	3층
	3 이재술	행정자치위원장실	803-5011	2층
	4 김충환	부의장실	803-5003	2층

선거구명	성명	호실	연락처(053)	비고
수성구	1 정순천	308	803-5075	3층
	2 김대현	302	803-5096	3층
	3 김덕란	309	803-5060	3층
	4 이동희	321	803-5035	3층
달서구	1 박돈규	314	803-5034	3층
	2 도이환	경제교통위원장실	803-5012	2층
	3 박부희	307	803-5063	3층
	4 최문찬	부의장실	803-5002	2층
	5 지용성	315	803-5095	3층
달성군	6 류병노	교육사회위원장실	803-5014	2층
	1 전성배	305	803-5061	3층
비례대표	2 김영식	311	803-5074	3층
	유영은	316	803-5073	3층
	이경호	312	803-5091	3층
	박정희	320	803-5032	3층

21세기 첨단산업기술의 중심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2001년 8월 지역소재 기금속산업체의 시험평가 및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해 국비 및 지방비를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현재 기계부품·소재시험평가센터, 메카트로닉스부품 산업화센터 등 2개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계부품·소재시험평가센터는 2005년 4월에 구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KOLAS)¹⁾ 받아 역학시험, 화학시험, 환경유해물질 분석 및 활성탄 시험분야 등 총 115개 규격에 걸쳐 지역 기계부품, 금속관련 업체에 대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3,000여건으로 연간 30억원의 비용절감과 150억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2008년까지(5년) 총사업비 353억으로 추진 중인 대구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구축사업은 2005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15개월 동안 사업비 100억을 투자, 대구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906㎡ 규모로 건립하여 금년 5월 7일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 전자과무향실, 크린룸, 신뢰성평가실 등 90여종의 첨단장비를 구축하여 신제품 개발지원, 시험 및 성능평가 지원, 규격 인증 및 신뢰성시험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100육성 대상기업과의 업무협약

육성전담기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상기업 : (주)캐프, (주)대현테크, (주)세양엠텍, (주)진양오일
 일시 : 2007년 3월 27일(화) 11:00 장소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층 회의실



“ 대구의 유일한 기계관련 연구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지원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메카트로닉스산업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연구개발지원, 기술개발지원, 특허·인증지원 등 3개년에 걸쳐 총 1,400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수출)증가, 고용창출, 원가절감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기술개발사업과 민간수탁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39건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계 및 자동차 부품산업, 전기, 전자,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인 금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차세대 금형기술혁신기반구축사업은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22억(국비 65, 지방비 49, 민자 8), 건물면적 1,782㎡, 첨단 장비 20여종 구축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품소재기업의 R&D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23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가입을 추진하여 지난 5월 30일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이사회 의결을 득하고 현재 산업자원부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지역의 취약산업인 부품·소재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장비의 휴면화 방지와 공동 활용을 통한 고가 시험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과 부품소재나 제품시스템 등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장 없이 일정기간동안 최초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신뢰성을 산업체 전반에 활용, 확산시킴으로써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제품 불신을 해결하고자 산업자원부에서 실시중인 신뢰성 쿠폰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섬유도시로서 신성장 동력산업인 기계, 금속,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구의 유일한 기계관련 연구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지원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정재협 연구원

☎ 053)584-9302(홈페이지 : <http://www.dmi.re.kr>)

1)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는 국제기준인 ISO/IEC에 적합한 인정기구(KOLAS)가 품질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시험능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국제표준화 제도



Information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세요!

『정부민원안내센터 110』 전국서비스 안내

- ▶ 목 적 : 정부기관 관련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콜 센터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 ▶ 개 시 일 : 2007. 5. 10(전국)
- ▶ 사용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됨 (유선전화 시내통화 요금)
- ▶ 안내범위 : 단순사항 직접 상담안내, 전문사항 해당기관 중계
- ▶ 연계대상 : 중앙행정기관 56, 자치단체 248, 공공기관 29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 휴무(자동응답)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홈페이지
<http://www.110.go.kr>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위반 단속 실시

▶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계량단위 환산표]

구분	법정계량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넓 이	• 제곱미터 단위 (m ² , km ² , ha)	• 평(坪),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1 평 ≃ 3.3058 m ² 1 정보 = 9917 m ² ≃ 0.009 km ² 1 에이커 = 4046 m ² ≃ 0.004 km ²
무 게	• 킬로그램 단위 (g, kg, t)	• 근(斤), 관(貫) • 파운드, 온스 •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 단속내용

- 비법정계량 단위 중 ‘평’, ‘돈’ 만을 대상으로 추진
- ‘평’의 단속대상은 공기업, 대기업으로 한정
- ‘돈’은 귀금속 판매상만을 대상
- 위반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기대효과 :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혼란 제거

▶ 시 행 일 : 2007. 7.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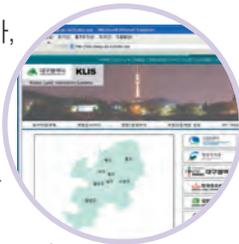
▶ 문 의 : 대구시 경제정책팀 ☎803-3425

●●● 대경교통카드 이용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 **시행일** : 2007. 8. 1 ~
- ▶ **운영방법**
 - 대경교통카드 이용금액이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카드 운영기관별 월간 누적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제공
 -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는 교통카드 이용시민은 (주)카드넷 홈페이지(또는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지하철 공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
- ▶ **문의** : 대구시 교통정책과 (☎ 803-4752)

●●● 토지종합정보 인터넷서비스 실시

- ▶ **시행일** : 2007. 7. 1 ~
-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정보의 열람
- ▶ **인터넷** : <http://klis.daegu.go.kr>
- ▶ **향후계획**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 구축
- ▶ **문의** : 대구시 토지정보팀 (☎ 803-4661)



●●●●● 불법주차차량 견인 문자서비스 실시

- ▶ **운영방법** : 불법주차 단속으로 견인된 경우 견인통지서 훼손 등으로 차량소재를 알지 못하는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견인된 차량에 운전자 휴대폰 번호가 부착된 경우 휴대폰 문자로 견인사실 통보
- ▶ **시행일** : 2007. 8. 1 ~
- ▶ **문의** : 대구시 교통관리과 (☎ 803-4884)

●●●●● 대구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Free-Pass 카드) 도입

- ▶ **운영방법** : 기존의 우대권 승차권 대신 대구지하철 우대용 카드를 발급받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나 대구버스와 타시·도 지하철 또는 버스에는 사용 불가함. ※단, 기존 1회용 승차권 발급기는 병행 운영함.
- ▶ **시행일** : 2007. 7. 27 ~
- ▶ **적용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이상 경로우대자
- ▶ **신청기관**
 - 장애인 : 본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가유공자 : 대구지방보훈청
 - 경로우대자 : 대구시 소재 우체국 (주민등록상 생일이 경과한 후 신청가능)
- ▶ **문의** :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 803-3990)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확대·개편 안내

대구광역시의회는 2007년 8월 말부터 시의회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 의정활동에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 홈페이지 신설, 의회 간행물 e-book 서비스 제공, 참신한 디자인 구성 등 새로운 기능과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council.daegu.go.kr>



「대구 의회소식」 무료구독 신청 안내

대구광역시의회는 연 4회~6회에 걸쳐 『대구 의회소식』을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제52호 발간에 이르렀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시민 궁금증 해소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구독 신청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용하고 친근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 ● **전화** : 053)803-5045 ● **팩스** : 053)803-5046
- **인터넷** :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daegu.go.kr>)→자료실→의회간행물→의회소식지→무료구독신청→구독장소, 이름, 연락처 작성→구독신청 클릭
- **주소**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동1가 1번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미국차세대 정치지도자 협의회 대표단」 의회 방문



대구광역시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

<http://council.daegu.go.kr>